

산 아래 굽어보며 행복한 세상오길 기원해 주네

66 신라의 바람소리 들리는 문경 봉암사(하)

“인태할 당시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기이한 행적과 숨겨진 이야기는 귀신이 나타났나 사라졌다 하는 것 같아 붓으로는 기록할 수 없겠으나, 이제 사람들이 귀를 치켜세우도록 한 여섯 가지의 이상한 감응과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했던 여섯 가지의 옳은 조행(操行)을 간추리고 나누어 나타낸다.”

고운 최치원은 지증 대사의 행적을 비석에 남기기 위해 대사가 생시에 보인 12가지의 일을 거론하고



원오탑비를 떠 받치고 있는 귀부

있습니다. 그 12가지는 6가지의 이적(異蹟)과 6가지의 사리분별에 맞아 본받음만한 행적으로 나누었으니 지증 대사의 생애가 인천(天人)을 두루 감응시켰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우선 6가지 이적의 첫 번째는 태몽입니다. 어머니의 꿈에 한 거인(巨人)이 나타나서 “나는 과거의 비파시불(과거7불의 제1불)의 말세에 사문이 되었는데 화를 낸 까닭에 오랫동안 용보(龍袍)에 떨어졌다가 이제 과보가 다했으니 마땅히 법인이 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태기가 있었고 400일이 지나서야 대사가 태어났는데 그 날이 사월초파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적은 대사가 갓난아기 때부터 비린 것이라면 어머니의 젖조차 먹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머니의 병과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것입니다.

17세에 구족계를 받고 강단에 나아가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취해 자빠진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범력을 보인 것이 네 번째 이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꿈에 보현보살로부터 “고행을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행하면 반드시 이를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부터 거친 옷을 입고 몸소 실천하며 자신을 단속한 것입니다. 후학들을 위해 가르침의 자리를 펴는 시점을 살펴 적절한 때에 말문을 열어 선과 교를 초월한 범법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 이적의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최치원은 이어 조행의 여섯 가지 사례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남의 도리를 알아 행함으로써 모범이 된 것, 남의 은혜에 반드

시 보답하는 행동,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돕는 것, 세상에 나아가 교화하고 돌아와 도를 닦는 것, 취사선택의 지혜를 일깨운 행동 등입니다. 9세기 신라의 왕과 왕족,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실명이 거론되면서 기록된 이 사례들은 적조탑비의 사료적 가치를 한껏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비의 읊기에는 최치원 자신이 현강왕의 명을 받아 비문을 짓게 된 경위가 설명돼 있습니다. 6가지의 이적과 6가지의 조행으로 나누어 지증 대사의 생애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힌 최치원은 “용렬한 문장을 끊지 않고 함께하니 짜짜기가 앞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겸손을 표합니다.

빗줄기가 좀처럼 가늘어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해 질 시간은 아닌데 봉암사 계곡은 으스스해 나그네의 마음을 바쁘게 합니다. 이제 일주문 밖으로 나가서 정진대사원오탑(靜眞大師圓悟塔, 보물 제 171호)과 탑비(보물 제 172호)를 친견할 차례이기 때 문입니다.

정진 대사 공양(敬讓, 878~956) 스님은 봉암사를 장건한 지증 대사의 손자뻘이며 봉암사의 중창주입니다. 그의 부도는 일주문을 나가 계곡 왼쪽 평지에서 있는 탑비 뒤 봉우리로 300여 미터 올라간 곳에서 친견할 수 있습니다. 희양산의 한 봉우리를 배경으로 산중턱에 당당히 서 있는 원오탑은 이름 그대로 그칠 것도 가릴 것도 없이 원융무애한 경치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에 우산도 무색해 비옷을 입고 찾아간 나그네의 풀은 초라할지라도 천년을 한 자리에서 해와 달, 바람과 구름, 천둥과 번개, 사람과 짐승을 돌이키게 보아 온 부도 앞에서는 귀하고 천한 모양새도 무상 그 자체임을 느끼게 됩니다. 정진 대사가 임정한 것은 956년이고 원오탑비는 965년에 세워졌으니 이 부도는 그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건주인 지증 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경내에 있는

지증대사 탑비, 12가지 특이한 사례 통해 생애 자세히 소개 경내의 지증 대사 부도·탑비와 달리 원오탑은 능선에 위치

점과 중창주인 정진 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산 능선과 계곡이 평지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 다소 생뚱맞은 의문을 품어 봅니다. 창건주의 부도는 후학들의 생활공간에 있어서 늘 고결한 지점이 되고 중창주의 부도는 능선에서 마을을 굽어보며 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세상을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날 특별 수도원으로서의 위상은 이 두 선지식의 깊고 그윽한 범행에서 비롯됐음이 새삼 감격스럽습니다. 말없이 따라와 옆을 지키고 선 아내에게 한 마디 던집니다.

“내가 출가해 스님이 됐다면, 그것도 선승이 됐다면 평생 봉암사에서 두문불출하고 정진했어도 모 르겠는 걸?”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은 원융무애한 경치 속에 우뚝 솟아 있다.

본전도 두 건전 탑이 돌아옵니다.

“출가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 좋은 도량에게. 얼른 내려갑시다.”

5월의 녹음은 비에 젖어 푸름이 더한데 천 년 전의 스승은 하나의 부도로 선 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 본래의 가르침이기에 빗소리도 천둥입니다.

높이 5미터의 부도는 신라 하대 부도의 전형인 팔각 원당형을 계승하고 할아버지뻘인 지증 대사 부도를 따

유가 찬하고 장단열이 비문과 전액 글씨를 썼습니다. 비문은 최치원의 문장형식에 영향을 받은 듯하지만, 내용적 구성에 있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비문의 앞부분에는 달마 대사에게 비롯된 선종이 중국에서 해동으로 변저 온 이후 면면히 전승 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정진 대사의 범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마 이래로 해능까지 이어진 법은 해능에서 남악에게로 이어졌고 남악은 마조도일에게, 도일은 신감에게, 신감은 해동 쌍계사의 진감에게, 진감은 지증에게, 지증은 백암양부에게, 양부는 정진공양에게로 법을 전했음을 밝힌 것입니다.

지증 대사는 봉암사터를 시주 받고 “스님들이 살지 않으면 도둑들의 소굴이 될 곳”이라며 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 때였으니, 첩첩한 산중이라고 하여 전란과 도둑떼의 발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문은 절이 허물어지고 폐허된 뒤 이곳을 찾은 정진 대사가 호랑이의 인도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속세의 인연에 따른 행보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비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뚝 솟은 산은 마치 거북이 비석을 지고 있는 듯 선덕(禪德)의 비명과 같았고 험준하고 웅장한 산봉우리는 거대한 불상(佛像)인데, 신령스러운 광명은 항상 빛나고 있었다. 이미 율수(律修, 선조의 뜻을 계승해 따름)할 뜻을 굳게 가졌으니 어찌 이곳에 절을 중창할 뜻을 사양할 수 있었겠는가? 기원정사를 세울 때 가섭 존자가 직접 진흙을 밟던 일을 추모하고, 목련 존자가 서다림(逝多林, 기원정사가 있던 숲)의 도량을

청소하던 일을 본받아 선실을 구축하고 학도를 지도하되, 혹한과 혹서에도 쉬지 않았으며 법을 듣는 대중 또한 대[竹]와 갈대처럼 문전에 열[例]을 이루었다.”

오늘의 봉암사는 바로 부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가섭 존자와 목련 존자의 정성을 본받아 알찬 도량으로 중창됐던 것입니다. 천 년 전의 선지식들이 부처님과 당대의 제자들이 몸소 실천하며 공부한 그 아름다운 광경을 흠모한 것처럼 오늘의 불자들도 직접 진흙을 바르고 청소를 하는 정성이 있어야 도량이 청정해지고 세상이 맑아질 것입니다.

부도밭에서는 수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어디 부도밭 뿐이겠습니까? 봉암사를 적시는 빗줄기보다 많은 선지식들이 봉암사 계곡과 산자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 초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초목이 될 것입니다. 사월 초파일에 찾아간 봉암사는 절이 아니라 부처님 품이었습니다. 원오탑 비명의 마지막 대목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리탑은 산봉우리처럼 높이 솟았네!
지금 세운 이 비문 영원히 남아서
초목과 함께 길이 봉암사를
비추소서!

(비문 해석은 <역대고승비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등을 참조함)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송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